

조선대병원에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 생긴다

2026년 10월 완공...호남권역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98병상...신속 진단시설·신종 감염병 검사 생물안전실험실도

조선대병원이 전국 최초의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들어간다.

지난 2017년 전국에서 최초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된 이후, 조선대병원이 무려 5년여 간 기능과 구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치며 준비한 사업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진료, 행정 등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질병관리청은 11일 국내 최초의 감염병전문병원이 올해 상반기 중 착공된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 내에 들어설 첫 번째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는 총사업비 781억원(국비 582억원, 병원 부담 199억원)이 투입된다. 연면적 1만3202㎡(지상 7층·지하 2층)에 총 98병상(음압 병상 36개) 규모로,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염병 차단을 위해 독립 건물로 지어질 이 병원에는 컴퓨터단층촬영(CT) 촬영실 등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설과 음압수술실·병실, 교육·훈련실 등이 설치된다. 치명률이 높은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 등을 검사·실험할 수 있는 생물안전실험실도 들어선다.

감염병전문병원은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고, 권역 내 사령탑 역할을 한다.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병상의 20% 정도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워둔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병상으로 결핵이나 독감 등 다른 감염병 환자의 진단·치료를 맡고, 권역 내 전문인력 훈련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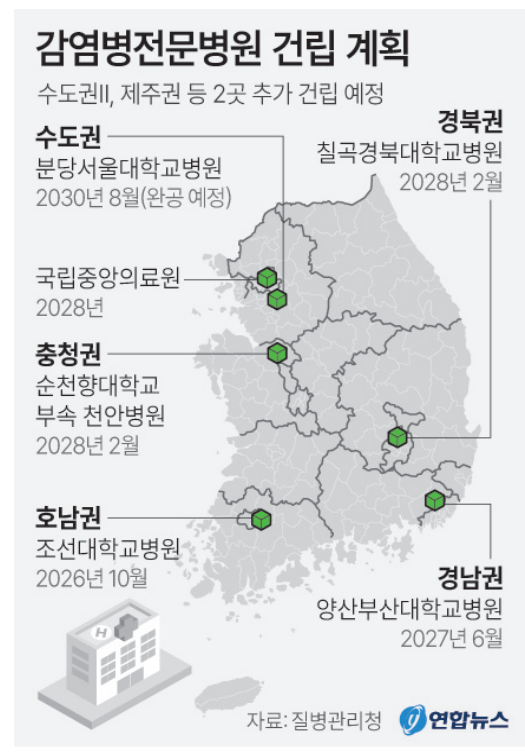
질병청은 호남권을 시작으로 경남권(양산 부산 대병원), 충청권(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경북권(칠곡 경북대병원), 수도권(분당서울대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차례로 건립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또 수도권 II, 제주권 등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2곳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세울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까지 더하면 향후 국내에는 총 8곳의 전문병원이 들어선다.

임동훈 조선대병원장 직무대리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건립될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조선대병원은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높은 평가 점수로 1위를 차지하며, 5회 연속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19 신고 4년만에 감소 광주 지난해 31만9971건 코로나 상담 24.3% 줄어

광주지역 119 신고 건수가 4년 만에 감소했다.

11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3년 광주지역 소방 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9 신고는 총 31만 9971건으로, 하루 평균 876.6건이 접수됐다. 전년보다 6863건(2.1%) 감소했는데,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4년 만에 줄었다.

화재·구조·구급 등 신고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의료 상담 인내가 1만 2408건(24.3%)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화재 출동은 하루 평균 13건(4839건)으로 총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222건(4.8%) 증가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부주의 327건(44.7%), 전기적 요인 146건(19.9%), 기계적 요인 111건(15.2%) 순이다. 구조 출동은 9479건(하루 평균 26건)으로 전년보다 494건(5.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화재 1856건(25.9%), 위치 확인 1110건(15.5%), 승강기 1042건(14.5%), 인명 감함 946건(13.2%) 순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난 구조와 신변 확인이 많았다. 구급 활동은 7만 7693건(하루 평균 213건)으로 전년보다 5935건(7.1%)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코로나19 증상인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구급 이용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북구 '문화어린이집' 새 단장

광주시 북구 각동동에 있는 국공립 문화어린이집이 새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다.

광주 북구는 국공립 문화어린이집 대체 신축 사업을 마치고 17일 개원식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국공립 문화어린이집은 1986년 준공돼 건물 노후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보육시설이었다.

북구는 지난 2021년 금융산업공익재단의 민관협력 공모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에 선정돼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후 프리노보자산재단과 협력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기존 어린이집을 허물고 재건축 공사에 나섰다.

새단장한 어린이집은 기존 건물보다 309㎡(93평) 늘어난 지상 3층 846㎡(256평)으로 조성됐다. 정원은 125명이다.

한편 북구는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공모사업에 선정돼 37억원을 들여(사·구비 17억) 신안동에 있는 국공립 태봉어린이집을 양산동으로 옮겨 재건축하고 있다.

또 오는 4월에는 임동 투산위브더제니스와 신웅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5·18조사위, 발표명령 등 진상규명 불능 이유 공개해야"

광주시의회, 시민토론회 개최 '발포 경위' 등 6건 규명 못해 "최종 결정 사유까지 밝혀야"

활동을 종료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직권사건 6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론을 내린 이유와 조사가 미비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권사건은 조사위가 법에 따라 규명해야 하는 핵심 과제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은 11일 오후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 강당에서 '오월의 대화'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조사위 관계자가 출석해 4년 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조사위는 직권사건 21건 중 15건은 진상규명 결정했으나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능 결정을 내린 사안은 '군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비롯해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수습',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군·경 사망·상해 피해', '무기고 피습사건', '군·국정원 등에 의한 은폐·외국·조작 사건' 등이다.

조사위는 "발포명령자를 특정하는 기록·문서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앞 첫 집단발포 현장에서는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발포 전 윗선과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최세창 여단장을 만났으나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발표를 하도록 했다'는 증언만 반복했다"며 "5월 21일 도청 앞에서도 통신



11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5·18진상규명 진단 및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오월의 대화' 시민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병이 '발포 명령 떨어졌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지만, 여단장과 대대장들 모두 누구로부터 그 말을 들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변호사는 "조사위가 정문 회조자 열지 않고 특별법상 규정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 발포명령자 등 증거 확보의 기회를 스스로 건어쳤다"며 "조사위가 규명하지 못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비한 점들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무작정 보고서 나오기를 기다려달라

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도 5월 21일 광주전·사직공원, 27일 전일빌딩에서 사격이 이뤄진 사실은 확인했으나, 22-23일 조선대 절개지에서 자행된 헬기 사격은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결론을 내는 데 그쳤다. 나주 산포면 비상활주로, 전대병원옥상, 송암동 오인교전현장, 광주교도소 등지에서도 헬기 사격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무기고 피습 사건, 군·국정원 등의 은폐·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는 충분히 이뤄졌으나 전원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능 사유를 제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위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됐는지, 위원들이 밝힌 사유까지 포함해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